

실직하면 재취업 더 어려워... 고학력 근로자 증가 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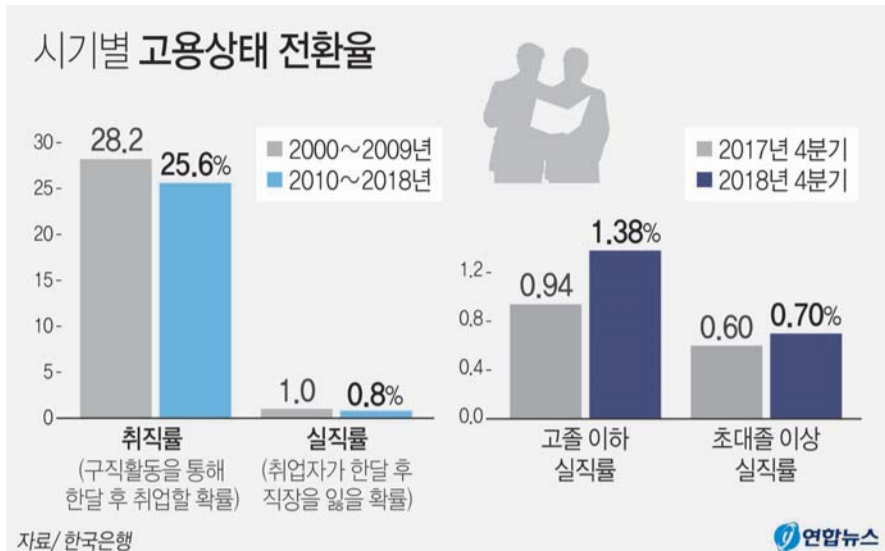
노동이동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

취직+실직률 합산 노동회전율 29.2%→26.4%로 2.8%p 감소
제도변화·고학력자 증가 등 원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변화와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 약화로 한 번 실직자가 되면 재취업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연구팀이 11일 '조사통계월보 6월호'를 통해 발표한 '노동이동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등 고용상태간 노동이동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번 취직하면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반면, 실직할 경우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취직률과 실직률을 합산한 노동회전율은 2000~2009년 29.2%였으나 2010~2018년 26.4%로 2.8%포인트 감소했다.

또 2000~2009년 취직률은 28.2%였으나 금융위기 이후(2010~2018년)에는 25.6%로 2.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직률은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다음 달 취직할 확률을 나타낸다. 취직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자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취업자가 다음 달 실직할 확률을 보여주는 실직률도 같은 기간 1.0%에서 0.8%로 0.2%포인트 떨어졌다. 한 번 취직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

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만 최근 실직률은 추가하락 없이 등락을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노동이동의 둔화 기조는 노동시장제도의 변화 이외에도 경기진폭 둔화, 고학력 노동자 증가, 생산설비의 세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고학력 노동자가 늘면서 취직률이 떨어지고,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고학력 노동자는 채용비용 및 임금 수준이 높아 일반적으로 저학력 노동자에 비해 취직률이 낮는데, 최근 들어 고학력 노동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취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생산설비의 세계화로 인해 기업의 고용조정 필요성이 일정 부분 국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도 국내 노동이동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고용상태 전환율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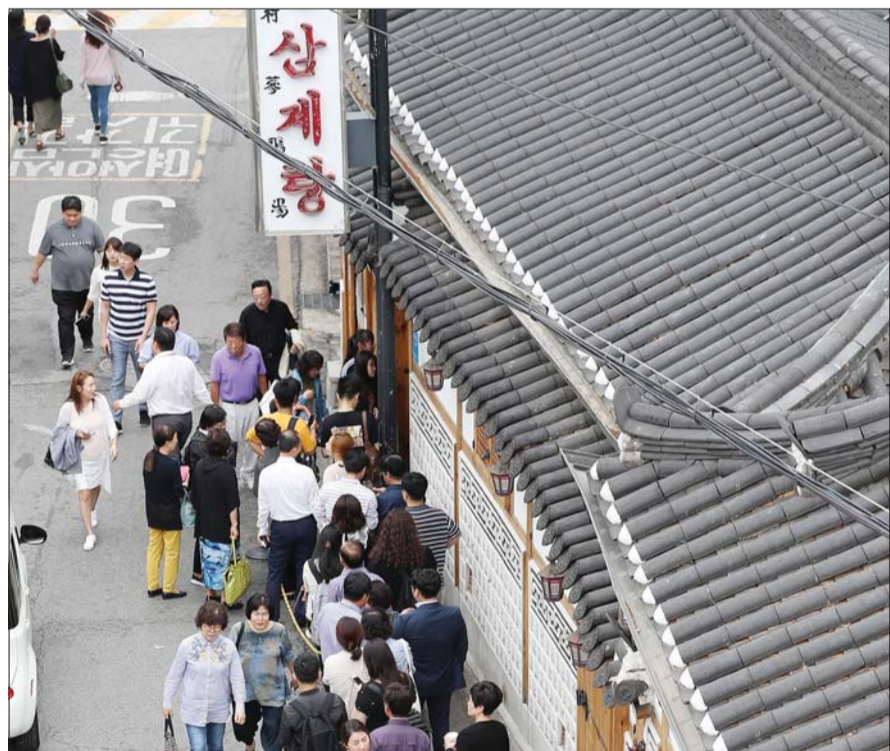
탈리아 등 고용보호지수가 높은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미국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실업률과 고용률 같은 기존 지표가 설명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기저의 변동사항을 포착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했다. 예를 들어 당월 취업자는 다음달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한편, 실업자가 되거나 가사·학업 등의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노동이동이 어려운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향후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주요 문헌에서는 시장에서 밀려난 노동자들과 관련해 교육 등을 통한 고용 재배치가 원활히 이뤄져야 노동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오늘 초복... 삼계탕집 문전성시 초복을 하루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삼계탕집 문전성시 모습.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訪美 김현종, 日 수출규제 부당성 알린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백악관·상하원 관계자 만나 한미 이슈, 수출규제 등 논의"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통상통'으로 알려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 차장이 미국을 찾은 까닭은 백악관 관계자 등과 만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이날 낮 미국 워싱턴 델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백악관과 미 상하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간 이슈들을 논의할 것이 많아서 미국에 왔다"고 했다. 이어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대상 수출규제 문제 관련) 이 문제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의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1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차장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일본발 수출규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 차장은 이전부터 '통상당인'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라고 했다. 일본발 수출규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중재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차장이 미국을 방문한 날, 아프리

카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15분간 통화를 나눴다. 두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일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일본발 수출규제는) 우리기업에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기업 및 세계무역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1일부터 14일, 그리고 17일 각각 일본과 우리나라를 잇따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는 10~21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필리핀 등 아시아 4국 첫 순방을 가진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미국과 아시아 국가간 협력 강화'가 골자지만, 일본발 수출규제에 대한 중재도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계 일각의 전언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

中 반도체 장비시장, 韓 제치나

SEMI, 시장 매출액 예상 발표
中 14.5%, 韓 11.7%, 대만 11.5%

은 11.69%. 한국은 9.2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만은 올해 반도체 장비 시장 1위다. 2016년 이후 3년만에 탈환했다.

중국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전세계 1위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반도체제료장비협회(SEMI)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세미콘 웨스트 2019'에서 반도체 장비 시장 매출액 예상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14.5%를 차지하게 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145억달러에 달한다. 한국이 11.75%로 2위, 대만이 11.55%로 3위다.

반도체 장비 시장은 반도체 산업을 내다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수주와 생산 계획에 따라 장비를 추가 도입하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중국은 한국을 제치고 반도체 장비 시장 2위로 뛰어올랐다. 점유율

한국이 더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다. 이번 예측이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이전에 나왔기 때문이다. 내년 대만과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내년 3위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TSMC도 보란듯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 6월 매출액이 7개월만에 전년비 22%나 늘었다고 발표했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침체에 빠져있는 것과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성장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업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다. AMD와 인텔, 퀄컴 등에서 수주를 받긴 했지만 실적에 반영할 상황은 아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김재용 기자 juk@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56.1억 달러 45% 급감

산업부, 日 투자액 51% ↓

올 상반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글로벌 투자 위축세와 미중 무역갈등 등의 영향으로 45% 줄었다. 특히 최근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가하고 있는 일본의 투자액은 51% 급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98억7000만달러(약 11조6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37.3%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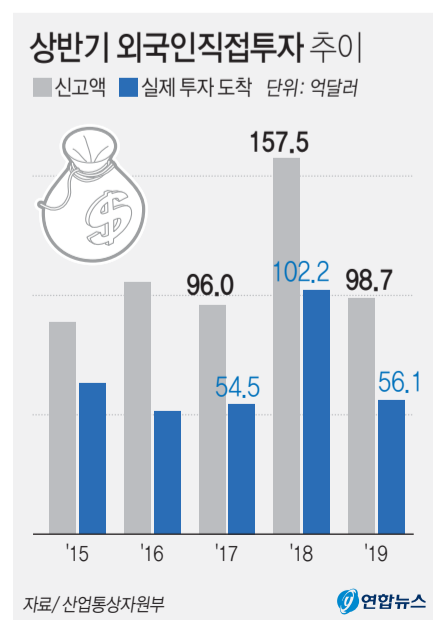
실제 투자도착 기준으로는 45.2% 감소한 56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은, 지난해 상반기에 유례없이 높은 실적(157억5000만달러·신고기준)을 보인 데 따른 기저효과와 2015년부터 이어진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의 하락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실적은 신고와 도착기준 모두 10년 평균 실적치(각각 84억5000만달러, 52억2000만달러)를 웃돌아 장기적인 상승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일본의 투자 감소가 눈에 띈다.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신고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8.5% 감소한 5억4000만달러, 도착기준으로는 51.2% 감소한 3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